

# 防産 육성 위해 관련부처 정책실무자 한자리에 모여



「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고위정책간담회가 4월15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40여명의 産·學·研·官 정책입안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산업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부측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의 차관보급이 참석하고 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임원사 대표, 방위산업학회에서는 임원급이 참석하였으며, 방산학회 부회장인 국방연구원 黃東準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방산관련토론회와 달리 방산관련 정부부처 고위정책책임자와 주요방산업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진정한 국가방위차원에서 방위산업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참조: PP 10~25)

**북한**의 핵사찰 거부, 「한반도 불바다」 발언과 美국방장관의 전쟁불사론 등에 따라 해외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자존의 기본인 방위산업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

## 다목적 실용위성 국산화, 산업화 전략 강구

**정부**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국산화 제고방안과 우주산업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우주산업 세미나가 지난 4월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섬유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세미나는 학계, 연구계, 업계, 정부기관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우주산업의 동향과 우주기술의 산업화 전략」(전자통신 연구소 정선중 박사), 「인공위성 개발의 국산화 방안」



(항공우주연구소 류장수 박사)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금성정밀, 4월 고객의 달 행사 전개

- 협력업체 지원, 환경보호 중점 실시 -



◀ 금성정밀이 그룹 고객의 달 행사에서 Car Navigation에 관련된 장치를 전시한 것을 구자경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이 관람하는 모습

**금성** 정밀(사장孫基洛)은 4월 고객의 달을 맞아 전 사업장에서 대대적인 처고객행사를 펼쳤다.

'92년 럭키금성그룹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4월 한달을 「고객의 달」로 정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고객 서비스활동을 전개한 이래 올해로 3번째 실시하게 된 이번 행사에 여러 종류의 많은 행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는 각 계열사의 특성에 맞는 2~3개의 중점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밀도있고 내실있는 행사를 시행한다는 그룹 전체의 목표에 따라, 금성정밀은 두번에 걸친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지원, 환경보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사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협력업체와의 정보교류 및 협의를 위한 협력업체 경영자 초청 간담회를 비롯, 협력업체 검교정 무상 지원, 우수고객

선진기업 견학 지원, 협력업체 현장 고객의 소리 청취 등 협력업체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4월 22일 「지구환경 보존의 날」을 맞아 전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진 공모전과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가하여 한강 고수부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전국 26개 부대를 순회, 방문하여 발칸, FM무전기 등의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점검 및 장비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순회 서비스 기간 중 손기락 사장이 육군 부대를 방문, 직접 고객의 불만사항을 경청하였다.

금성정밀은 4월 한달간 고객초청 체육대회, 신규사업 설명회, 우리 수산물 애용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상을 보여주었다.